

광주시 ‘대한민국 혁신 1번지’ 우뚝

올해 정부혁신 각 분야 공모·경진대회서 잇따라 수상

“내년 자치구·공공기관도 혁신 분위기 확산해 나갈 것”



광주시가 지난달 26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세종 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9년 지방인사혁신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가 행정, 경제·산업, 교통, 복지, 인사 등 올해 정부혁신 각 분야 공모·경진대회에서 잇따라 수상하며 대한민국 혁신 1번지로 우뚝 섰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 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진행된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디자인단 경진대회에서 '영구임대주택 공동체 복원 프로젝트'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프로젝트는 갈수록 낙후되고 공실이 늘어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과 값싼 집을 찾기 어려운 청년 주거 문제를 복합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지난 3월 '2019년 국민디자인단 공모과제'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추진했다.

청년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해 활력을 불어 넣고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활동을 전개해 공동체 활성화를 이뤘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선 26일에는 행정안전부 주최 지방인사혁신경진대회에서 희망인사시스템 구축, 핵심현안담당관제 신설, 공공기관 통합채용 등 공직하고 투명한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이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지난달 4일에는 행정안전부 주최 협업경진대회에서 '기관 간 협업을 통한 광주광역시 교통사고 줄이기'로 국무총리표창을 받았고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공모에서 구직-채용-근속 등 단계별 맞춤형 청년취업지원사업인 '광주 청년 일 경험드림' 과제로 행정안

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정부 주최로 열린 정부혁신박람회에서는 문재인정부 대표혁신사례로 '광주시 노사상생 광주형일자리와 인공지능'이 선정돼 전시관을 설치·운영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사상생 광주형일지리를 성공시켜 '기업을 기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공지능으로 4차 산업혁명에 적시 대응해 글로벌 기술·제품 경쟁력을 확보하는 광주시의 새로운 산업혁신 모델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산업혁신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반관객뿐 아니라 박람회 참가한 정부중앙부처와 다른 지자체, 공공기관 관계자 등 1500여명이 방문하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정식 시 혁신정책관은 "올해 정부혁신과 관련한 정부의 각종 공모·경진대회에서 얻은 우수한 성과는 이용섭 시장의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와 시 공직자들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시책들을 적극 발굴해 추진한 결과"라며 "내년에는 광주혁신축제 등을 통해 시민뿐 아니라 자치구, 공공기관에도 혁신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개발공,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제 및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기준이다. 전남개발공사는 인증 획득을 위해 주요 사업별 전담팀을 구성하고 △부패 리스크 파악 및 평가 △부패 방지 지침 제정 △전 임직원 부패방지 서약서 작성 등 2차에 걸친 엄

전남개발공사는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지속적인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은 '국제 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분야의 국제 표준으로 조직 내 발생 가능한 부패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통

격한 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게 됐다. 공사는 이번 인증을 통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이 대외적으로 공인받게 됨으로써 도민과 고객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청렴·윤리경영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김철신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인증을 계기로 기업의 투명성을 더욱 높여 윤리경영 선도 지방공기업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도 "새천년 으뜸인재 키우자"

으뜸인재 증서 수여 및 새천년 인재 봉사단 발대식

전남도는 2일 도청 왕인실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 으뜸인재 증서 수여 및 새천년 인재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는 전남스타200인, 글로벌문화체캠프, 마이스터 현장연수, 청년무한도전프로젝트 등 5개 분야에서 선정된 417

명의 으뜸인재와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했다.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는 '인재가 전남의 희망입니다'는 가치 아래 3개 분야 17개 과제를 선정, 전남도가 민선7기 임기 내에 500억원을 집중 투입해 미래에 지역을 이끌어갈 으뜸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민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 스 222-5547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www.nhis.or.kr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9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므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연도	고소득층	4분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2016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비율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동구합창단, 제23회 정기연주회 개최

광주 동구는 '동구합창단 제23회 정기연주회'를 오는 5일 저녁 7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주회는 지역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수준 향상과 문화 나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동구합창단은 '꽃구름 속에', '저 구름 흘러가는 곳',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등 한국적 감성과 정서가 담긴 10여 곡을 열창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막덴싱어즈'와 스포트라이트 김혜미 씨가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 삽입곡 '네순도르파'를 비롯해 'I Could have danced all night' 등을 함께 부르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인다.

서구, 일제강점기 피해자 겨울나기 점검

광주 서구는 11월 29일 관내에 거주하시는 일제강점기 피해자 할머니들을 찾아보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점검했다.

서구 관내에 거주하는 1944년~1945년 당시 강제동원된 피해자는 두 분으로 각각 일본 전범기동 도야마 후지코시 근로정신대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강제노역에 동원됐다.

이날 서구는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중간장문 커튼 설치와 유리창 비닐막이 뚫렸던 등을 설치했으며, 동주민센터에서는 방한이불과 김장철 손맛김치, 후원물품 등을 전달했다.

남구, 자동심장 충격기 의무설치 기관 점검

광주 남구는 심장 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자동심장 충격기 의무 설치 기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2일 남구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심장 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관내 공공 보건기관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41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이날 기준으로 관내에는 남구보건소를 비롯해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빛고을 전남대 병원 등 공공 보건의료 기관 7곳과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33곳, 긴급 구조를 위해 구급차를 운용 중인 남부소방서가 자동심장 충격기 의무 설치 대상에 관리되고 있다.

북구, 제9회 어린이 안전대상 평가 국무총리상

광주 북구가 '행정안전부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9회 어린이 안전대상' 평가에서 광주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한다"고 2일 밝혔다.

'어린이 안전대상'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창의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북구는 올해 '2019년 어린이 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어린이·학부모 행정참여 △안전제도 개선 △안전인프라 구축 △안전문화 기반 조성 등 4대 분야 20개 과제를 중점 추진했다.

광산구, 학교로 찾아가는 자살 예방 교육 실시

광주 광산구가 2~20일 초·중·고 6개교에서 '찾아가는 청소년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청소년 위기상황 발생 예방을 위한 이번 교육은 '2019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선정에 따른 것.

학교생활로 적절한 상담·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의 사정을 감안해 교육은 학교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동영상으로 보는 생명의 소중함 △생명사랑지킴이 청소년 게이트키퍼의 역할 공유 △게임과 도박 구별하기 등이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 교육지원과(062-960-3629)에서 한다.

임형택 기자

호남신문 공익 캠페인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입니다"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 함께 약속해주세요.